

행 재정평가 기능은 상당한 기능 보강이나 접근 구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평가의 경우, 결산중심의 재정자료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표성있는 한정적인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정도가 평가되면서,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의 순응 확보 측면과 지자체 재정현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분석과 재정평가체제라는 두 개의 재정관리장치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인 접근으로, 재정분석장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망라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창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평가는 재정분권에 대한 책임 이행 구조로서 재정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구상을 생각할 수 있다.

나. 지방재정분석장치 설계 접근

현재와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따른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에서 세입과 세출 지표들을 중심으로 재무적인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는 작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를 통한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만 하면 이미 공개

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의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들간 상호비교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정보를 정리하는 “연구 및 분석지표” 보다는 한 차원 나아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기초가 되는 “정책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활용 목적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정분석 지표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성과지표 중심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분석지표들을 정책영역을 구분하여 망라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때 재정분석장치는 지방재정 정보들이 제공되는 재정성과정보창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분석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재정관리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환경 정보(인구, 산업 동향 등)와 재정의 궁극적 성과로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결과 지향적 재정정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을 위한 정보창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에서, 시민이나 지방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현장 지향적인 중범위 정책성과 정보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지적되는 것(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연도말 보도블럭공사 등)은 항상 쟁점으로 지적되고 시민사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현행 재정관련 지표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상적인 재정지표만을 분석하게 되면 지방재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식